

인가? 남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행은 꿈도 꾸어 보지 못한 새로운 것만을 노려보아야 한다.

## 6. 모범생이론

모든 학생들이 모범생이 된다면  
우리 나라는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사회 통념상 모범생은 하라고 하는 것만을 잘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시키지 않는 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규제하고 질책하는 환경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모범생이론은 어른이나, 교사나, 선배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들이 하라는 것에만 충실하고 안주하며 지내다 보면 결국은 도태되는 부류에 속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너무 경직된 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의 규범, 부모의 권고, 교사의 지도,

선배의 충고에만 철저히 순종하다 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의 앞날이,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모든 사물은 젊은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쇠퇴한 과거지사로 변해 있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목표는 비전(Vision)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새로운 학문분야가 미래 유망학과가 될 것이고, 현재 존재 여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신규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대두될 것이다.

#### ■ 우리의 모범생은 문제가 있다

모범생은 모범기업에 취직하여 모범사원이 된다. 일류 대기업의 신입사원 모집에는 명문대학 모범생 출신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들은 학점이 우수하고, 어학실력도 괜찮고, 용모도 단정하다. 또한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절차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들만 믿고 있으면, 그 기업은 곧 사양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성실하기 때문에 엉뚱한 발상은 애초에 안할 것이고,

학점이 우수하니 인사고과 기준도 확실하게 외울 것이다. 어학실력이 우수하니 승진시험도 남보다 앞서갈 것이다.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다 보니 지시가 없는 일은 할 생각을 안할 것이고, 규정을 잘 준수하다 보니 업무의 순발력보다는 결재과정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그래서 모범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기업의 정체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모범생은 사회에 나가 모범시민이 된다. 이들은 연말 캠페인으로 벌어지는 '출고 배고픈' 불우이웃돕기에도 적극 참여한다. 출다고 한 것을 보니 연말에 도와주어야 할 것 같고, 배고프다고 하니 라면을 사고, 무언가 부족한 듯하여 굴을 몇 상자 사갈 것이다. 고아원에 가면 가져간 물건을 쌓아 놓고 기념사진을 찍어야 하고, 양로원에 가면 할머니들이 춤을 추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불우이웃돕기 성수기가 되면 할머니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모범시민들이 지켜 보는 자리에서 굴을 까먹어야 하고, 어린이들은 강추위 속에서 기념사진을 몇 차례씩 찍어야 한다.

아마도 불우이웃들은 모범시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들은 모

범시민들이 여름에도 방문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라면 말고, 아이스크림과 팥빙수도 먹고 싶을 것이다. 고아원을 떠나 야유회에서 사진을 찍고 싶을 것이다. 양로원의 할머니들은 모범시민들이 추는 춤을 보고 싶을 것이다. 젊었을 때 솜씨를 날렸던 별식이 먹고 싶을 것이다. 모범시민들의 이웃돕기도 문제가 많은 것이다.

요즘 웬만한 기업치고 연수원 없는 기업이 드물다. 연수원은 신입사원 전원을 모범사원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배우고, 극기훈련을 수행하며, 회사 창립역사, 성장과정, 조직체계, 업무규정과 인사고과 지침을 익힌다. 선배 임원들은 나와서 과거의 성공담을 회고한다.

그러나 이 연수과정에 문제가 있다. 연수내용이 철저히 과거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모범생에게 더욱 견고한 틀을 씌워 과거시대의 모범사원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이제부터 미래형 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산업구조를 가늠하고, 창의적 사고, 모험적 행동, 도전과 실패를 통한 지혜의 연습장으로 연수원을 바꿔야 한

다. 다국적기업의 상륙으로, 정보통신망의 확산으로 아군과 적군,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세상이다. 왜 유니폼을 입히고 암호와 같은 구호연습에 열을 올리는가? 이는 기를 키워 나가야 할 신입사원들을 순화교육시키는 셈이다. 이러한 형태의 연수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인가? 아마도 관리가 잘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혁명시대에는 관리체제가 유연할수록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 ■ 문제가야 때론 진정한 모범생이 된다

모범생 자식을 두지 못한 부모들은 사람 많은 데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기가 죽는다. “영 말을 안 듣는다”, “통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부모님들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였던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식들과 쓸데없이 벽을 쌓고 지내는 것이다.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도록 노력하면 될 터인데, 이해하기 귀찮으니까 자식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셈 아닌가?

국익을 빛낸 사람, 기업을 일으킨 사람, 남다른 업적으로 대중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성장과정을 그들의

부모에게 묻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들의 첫마디가 “어렸을 땐 부모 속 많이 썩었다. 어찌나 고집이 센지 마음먹은 것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자라면서 철이 들어 성공했으니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한다.

고집이 있었다니 어렸을 적부터 주관이 투철했을 것이고, 마음먹은 것이 있었다니 목표의식이 확실했을 것이고,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더니 그것이 바로 집념 아닌가? 자라면서 철이 난 것이 아니다. 원래 철이 들어 있었는데 자식의 도량에 못 미치는, 소견이 좁은 부모들이 미처 못 알아보았을 뿐이다. 어린 시절에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그 집안의 모범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겠는가?

가장 모범적인 학생은 장차 가장 소시민적인 성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 교사의 주의사항만을 잘 들었던 학생은 사회에 나아가서는 직장상사의 지시에 순종할 것이고, 집에서 부모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만 했던 학생은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지시만을 잘 따를 것이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 부모로부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던 자식이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말만

잘 들어 부모들이 서운해 하고 주위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부모들이 그렇게 되도록 교육시킨 것이다. 이들이 학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얘기는 무엇이겠는가. “나는 너희들같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푸념만 계속할 것이다.

이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진정한 모범생을 키워야 한다. 이미 모범생의 칭호를 얻은 어린이들에게는 모범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본인의 관심사,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가 시키지 않는 일도 한 번씩 해볼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어느 유명인사가 하는 연설을 듣고 공감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 연사가 말하기를 “무엇이든 한 번씩 해보는 것은 철학자의 태도요, 두 번 이상 집착하는 것은 중독자의 행태(Once a philosopher, twice an addict)”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도 젊은 학생들이 한 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건전한 양식이라고 믿는다.

일전에 서울대학교에 와서 특별 세미나를 하였던

MIT 공과대학의 네그로폰티(Negroponi) 교수는 젊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해달라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교수들이 하라고 하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60점짜리다”라고 하였다. 즉, 모든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의 실력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그 학생들이 교수가 되었을 10여 년 후에는 그 지도교수의 현재 학문의 수준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교수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도태되기 십상일 것이다. 따라서 교수가 시키는 공부를 하되 이를 60퍼센트로 생각하고, 40퍼센트의 새로운 부분은 지도교수도 시키지 않고, 책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부모들도 권장하지 않는 새로운 탐험을 하여야 한다.

부모들이 바뀌어야 우리 주변에서 세계적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지금 부모들이 시키는 것만을 잘 따르는 모범생 자식은 서커스단에서 길들여지는 야생동물과 같다. 그들이 서커스단인 집안을 떠나면 밀림속 같은 이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부모들은 아직까지 모범생 축에 끼지 못한 자식들 중에서 가문을 빛내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미래형 모범생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는 기업은 신입사원 모집에 비모범생 출신들도 많이 채용해야 한다. “시키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고”, “위험한 일만 쫓아다니고”, “실수가 많은데도 좀처럼 물러서지 않으며”, “한번 빠지면 정신을 잃으며”, “궁금한 것이 많고”, “달라붙으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자식, 사원을 둔 부모, 기업인은 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걸어야 한다.

이제 부모, 교사, 기업인, 국가지도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개념의 모범생을 발굴해내고 이들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